

고헌고택에서 율수원으로

권현호

건축사사무소 삼간일목 대표









산청은 예부터 산 좋고 물 맑기로 소문이 난 지역이며, 울수원은 이곳 산청의 단계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황매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분지인 이곳은 단계천과 신등천이 합수되는 곳으로, 명문 고택의 전통과 옛 담장의 멋스러움을 간직한 전통마을이다. 그야말로 기품이 넘치는 곳이다.

울수원은 순천박씨 고헌고택이 있던 자리에 지역성을 반영한 9채의 건물과 사랑마당, 안마당, 후정 등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것의 우수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한옥스테이 시설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울수원의 설계는 단계별로 시행된 규모 확장과 더불어 세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쳤으며, 1년이 넘는 설계기간과 2년 여의 공사 기간 중 수많은 한옥의 답사와 더불어 시공법과 재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2013년 5월에 완공되었다.



1. 안채(하계채) 2. 안사랑채(농암) 3. 식당채(국이관) 4. 바깥사랑채(고헌)
5. 목욕채(설조당) 6. 대문채(영수문) 7. 광채(지만오) 8. 사모정(용담정)
9. 사주문(울수문)



안마당

9개의 외부공간 (마당과 정원)

한옥의 가치는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물로 둘러싸인 마당, 건물과 건물이나 건물과 담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격의 외부 공간과 그 다채로움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크기, 그리고 건물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울수원의 주요 영역은 △대문채, 바깥사랑채, 목욕채와 안사랑채가 열린 구조의 사랑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영역 △사랑마당에 비해 위계가 높은 안마당 영역 △사모정과 연못, 사주문을 포함한 후정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런 가운데 진입마당,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별채마당, 목욕채 후원, 안채 후원, 텃밭, 그리고 후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마당은 폐쇄적이지 않도록 채와 채 사이의 사이공간, 담장과 지붕 사이의 열린 공간을 통해 소통할 수 있고 시각적·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진다.

진입마당의 측면으로 ‘ㄱ’자형 대문채를 지나면 행랑마당의 낮은 담을 돌아 사랑마당으로 들어선다. 높은 누마루를 가지고 있는 ‘ㄱ’자형 바깥사랑채와 화려한 지붕을 가진 안사랑채, 두 채가 하나로 연결된



사랑마당

목욕채와 지하공간을 가지고 있는 식당채의 일부가 사랑마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정과 안마당의 영역으로 동선이 확장된다.

안채로의 진입은 안사랑채 양측면의 두 협문으로 가능하며, 안마당으로 들어서면 누마루와 커다란 대청을 가진 '1'자 형태의 안채가 정면에 보이고, 식당채의 일부와 셋담이 안마당을 정적인 공간으로 한정한다. 안채 뒤에는 장독대와 굴뚝을 가진 후원이 있다.

후정은 연못과 사모정이 있는 정원으로 식당채와 바깥사랑채 사이의 협문으로 들어가며, 외부 조망보다 내부 개방감을 확보하였고 후문 기능을 가진 사주문을 두어 식당채의 서비스 동선을 확보한다.

기존 고택

1900년대 고전고택이 지어진 후, 부분적으로 개·보수된 6채의 노후화된 한옥이 남아 있었음.

1차 계획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구분하여 영역을 설정하고, 마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옥을 재배치하여 공간의 위계 강조.

2차 계획

목욕채를 추가하여 마당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각 채별 시각적 교류 확보.

최종 계획

연못과 정자를 가지는 후정을 측면에 배치하여 외부공간 의 확장과 자연친화적인 공간 창출.



안채 누마루

공간의 확장과 연계

크게 3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물수원은 각 영역 간 섀도우로 구분되고, 동선과 시선의 교류를 통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다. 공간의 연속성을 통해 다양한 정서의 변화를 주며, 비례칭의 균형감을 가지는 배치구성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한다.

사랑마당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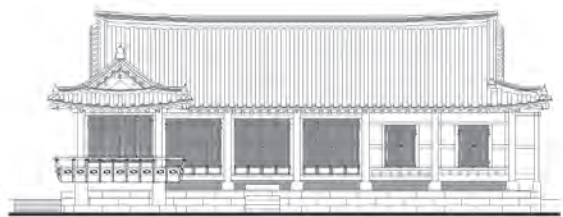
개방적 배치를 통해 외부공간 상호간 동선과 시선의 교류 및 연계성을 높임.

안마당 영역

정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깊이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위계와 상징성을 높임.

후정 영역

기능적인 동선을 고려하고 내부 정원의 다양화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



바깥사랑채 입면도



안채 방

9채의 한옥

울수원의 개별 한옥은 각각의 공간적 성격 및 기능에 맞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인 통일성과 조화를 바탕으로 개별적 개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안채 : 하계재(下溪齋)

산청 울수원의 중심 건물로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의 겸손을 의미하는 하계재는 누마루가 있는 6칸 7량의 안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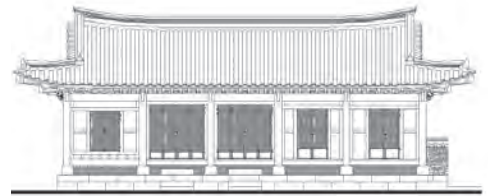
누마루를 포함하며 안마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좌측 영역과 안마당을 건너 사랑마당까지 시선이 가능하지만 소극적으로 열려 있는 우측 영역, 안마당과 후원 쪽으로 별개의 툇마루를 가진 대청영역으로 구분된다.

‘┐’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마당과 후원에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상징적 위계를 강조하였다.

안사랑채 : 농암(農菴)

바깥주인의 공간인 농암은 '농자(農者)의 초막'이라는 뜻으로, 겸손의 공간을 의미한다. 팔작지붕의 형태와 겹처마를 가지며 율수원 중심에서 화려함을 드러낸다.

전면 툇마루가 사랑마당과 자연스럽게 관계하여 전통한옥에서 느끼는 마당과 마루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며, 안마당 쪽으로 독립적인 툇마당을 가지고 있어 열리면서 닫힌 다양한 공간이 숨어 있다.



안사랑채 입면도





안사랑채 방



안사랑채 대청



백갈안사랑채





바깥사랑채 방



안사랑채 뒷공간

바깥사랑채 : 고헌(古軒)

고헌은 손님이 머무는 공간으로, '선비정신을 품고 있는 옛 사랑채'라는 의미를 지닌다. 'ㄱ'자 형 평면으로 두 침실과 복도, 그리고 식당채 쪽 뒷마루를 가진 영역과 계자난간의 누마루를 가진 영역으로 구분된다.

두 영역 사이의 작은 마루는 외부이면서도 내부인 공간으로 사랑마당과 별채마당을 이어주는 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울수원 건물 중 방이 가장 많은 바깥사랑채는 7칸 5량 집으로 한옥의 채움과 비움을 통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식당채

식당채 : 국이관(鞠二館) / 소요유(逍遙遊)

식당채는 지하층이 있는 한옥이다. 1층 국이관은 ‘몸과 정신을 기르는 곳’이라는 의미의 식당공간이며, 지하층의 소요유는 ‘함께 어울려 즐기는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하층은 식당채와 바깥사랑채 일부의 지하에 위치하여 선릉을 통해 진입한다.

전통한옥의 양식과 현대적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서비스를 고려하여 안마당과 사랑마당 영역에 걸쳐서 배치되어 있다.

1층 식당의 내부는 한옥의 구조가 드러나는 형태로 수직적 공간감을 확보하였고, 지하 다목적 실은 단순한 인테리어와 선릉을 통해 수평적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식당채 지하



식당채 지하

목욕채 : 설조당(雪澡塘)

설조당은 '몸과 마음을 눈처럼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두 채를 한 채로 연결한 8칸 5량의 휴식공간이다.

목욕 및 샤워시설이 있는 채와 황토불가마 시설을 포함한 채를 연결하여 하나의 목욕채로 계획하였고, 현대식 휴식공간을 한옥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기능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만 두 채로 나누어 사이공간을 통해 열린 공간을 만들고 고측창과 휴게실 등을 두어 답답함을 최소화하여 목욕공간인 동시에 휴식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목욕채 황토방



목욕채 내부



대문채

대문채 : 영수문(永修門)

울수원의 정문인 영수문은 '영원히 덕을 닦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ㄱ'자형 평면으로 관리동의 성격을 가진다.

대문채는 울수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며, 진입마당과 행랑마당 사이에서 솟을대문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전이공간이자 상징의 공간이다.

부엌 및 공간 : 혁선조(革善竈)/지만오(持滿廐)

혁선조와 지만오는 '식재를 좋은 방향으로 변형시키는 공간'이란 의미의 부엌과 '물건이 가득한 상태인 풍요'를 상징하는 공간이 있는 2칸짜리 광채다.

식당채 뒤쪽에 위치하며 식당주방의 추가 서비스 공간으로 안채영역에서도 동선이 연결된다.



부엌과 공간 123



사모정 후정

사모정 : 용담정(龍潭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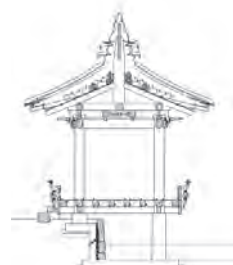
용담정은 '용이 사는 연못'을 의미하며, 지붕 4개가 한 개의 모서리에 모여 사각뿔 형태를 이루는 사모정이다.

내부정원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한국건축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정자로, 단순한 평면이지만 계절의 풍경과 어울려 다양한 얼굴을 가진다.

4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닮아 있는 모습으로의 한옥은 또 하나의 자연이다.

사주문 : 율수문(律修門)

율수문은 '스스로 덕을 닦는다'는 의미의 사주문으로 후문의 성격을 가진다. 율수원으로의 후면 진입 시 차량 출입도 가능한 2칸의 문으로 비워진 후정에 사모정과 함께 공간요소를 이룬다.



사모정 입면도



사주문

신한옥이 아닌 우리 한옥

한옥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어 온 우리의 건축양식이자 형태다. 외관의 특수성만으로 하나의 전형적 형태 이미지로 전락되거나 단순히 과거의 전통으로 박제되어서는 안 된다. 한옥에는 여전히 문화적·공간적·건축적 형태 속에서 지속되고, 영속되며,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다만 현대 생활에 맞게 재조정되고, 기술적인 보완과 더불어 한옥의 세계가 전통의 보존을 뛰어넘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현 시대에 맞는 한옥을 재조명하는 것이 잊혀지고, 단절된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의 문화적·현상적 트렌드로 여기기 이전에 한옥의 본질적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의 한옥을 신한옥 또는 생활한옥이라 말하곤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옥은 단지 우리 한옥일 뿐이다.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의 형태, 그리고 자연과 도시에 대한 관념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세계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고, 복원되고, 새롭게 변형되어, 더욱 확장되는 세계다. 우리는 늘 세대와 세대가 이어진 채 존재해 나가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존재해 온 건축은 늘 현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 한옥 역시 여전히 우리 땅, 우리 도시에서 그 가능성과 의미로 빛나고 있는 우리의 현대 건축이다.